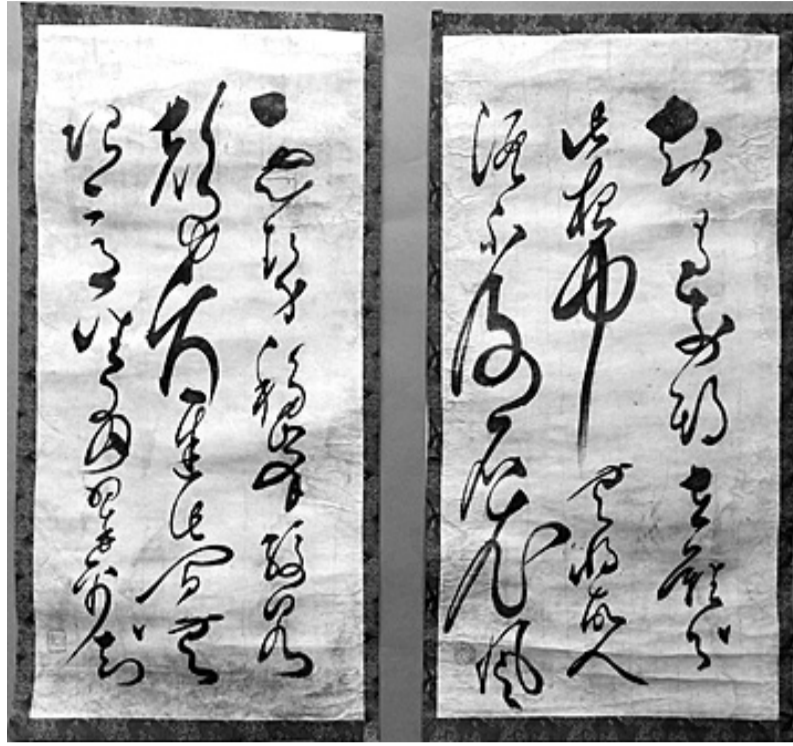


백형은 서예가 유품 2700점 고향으로

집·가족·자연과 생명 이야기

광주 출신 조성국 시인, 시집 '해낙' 발간

장흥 출신...한평생 서예 외길
서화류·유물·서예사 자료 등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증
'청암 이삼만 글씨' 등 포함



청암 이삼만 글씨

한평생 서예에 정진했던 향산(香山) 백형은(1956~2020) 작가. 그는 대한민국 서예전람회들 비롯해 경기도 서예전람회, 대한민국 서도대전, 홍재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했으며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전, 한국서예박물관 개관기념 한국대표작가 기증전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백 작가는 뜻하지 않은 병으로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남도에 바탕을 둔 창작활동을 해왔던 그의 예술세계가 안타깝게 막을 내린 것이다.

서예 외길 인생을 걸었던 장흥 출신 백형은 작가의 서예 관련 유품과 작품들이 대거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에 기증돼 화제다.

타계 3년 만에 장흥과 서울 두 곳에 분산된 자료들이 유가족들의 결정으로 모두 고향의 국학기관에 기증된 것. 이번에 기증된 서예 관련 작품 및 유품은 모두 2700여 점. 서화류(950여점), 각종 유물(450여점), 서예사 자료와 약간의 고서 및 고문서다. 청암 이삼만을 비롯해 석촌 윤용구, 설주 송운회, 고당 김규태 등의 글씨가 포함돼 있다.

천득염 원장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도 고향 장흥을 잊지 못했던 향산의 유품이 고향을 근거로 한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증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진흥원에서는 전시회와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 고귀한 뜻을 기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증품은 작품이 대부분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근현대 서화가의 작품과 자신

의 유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진흥원에서는 작품별 사진 작업과 함께 해제를 해 도록집 등도 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향산의 유품 기증은 부인 김태임씨의 결단과 처남 김희태(전 전남도청 문화재전문위원)씨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향산은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의 수원백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학을 학식으로 전수받아 서예를 익혔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장석(長石) 김장동(1947~2019)의 문하에 입문하면서 전문 서예가의 길을 걸었다. 장석은 구례에서 근현대의 서예가로 명성을 날린 고당(顧堂) 김규태(1902~1966)의 아들이다.

향산은 '소년문장은 있어도 소년명필은 없다'는 말처럼 역대 서예가의 서법을 섭렵하며 자신만의 필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희태 문화재전문위원은 통화에서 "3년 전 누나의 자형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기증을 하게 됐다. 고인 본인 작품도 있지만 구입이나 증정 받은 작품도 많다. 우리 지역 자료 등을 포함해 자료는 한곳에 기증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증을 했다"며 "이 자료를 토대로 지역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 기증을 계기로 앞으로 기증문화가 많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 "집 앞 산책 생각나꽃과 벚꽃이 속삭인 걸/ 귀여겨들었다 공연히/ 두개비 어영 어영 우는 파초 앞 아래 비 들어치는 걸 듣고/ 맥감나무 꼭대기에 호를 앓아 흥시/ 까악 깎 찍어 대는 점정 부리의 새소리 듣고/ 동구 밖 냇가 나뭇 가지에 굽으며/ 하늘 한가운데로 치웃아 오른 월색이/ 이마 머리에도 문신처럼 푸르게 새기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은비늘 반짝이며 하늘로 튀어 올라가듯..."

위 시 '내 몸에서 흉내가 나기 시작했다'는 토속적 방언을 활용해 리듬감 있게 생동감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인은 그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노래하고 희원한다. 존재의 근원과 자연에 '젓줄을 댄' 시인의 작품은 시류나 풍조와는 무관하게 '존재'에 중심을 두고 있다.

고재중 시인은 "조성국이 존재의 근본과 근원인 집과 자연에 터를 대고 그 토착어들을 통해 삶의 근본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우리 시단에서 흔치 않기에 관심을 가질 만하기에 충분한 것이다"라며 "우리 고유의 말을 찾아내 자기만의 독자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조성국의 시도는 일단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심이 바라본 '우리 문화재'

국립광주박물관, 이달까지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예령)은 '제34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문화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된 이번 그림전에는 수작 39점이 소개된다. 전시는 박물관 전시관 2층 다목적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박물관은 지난 9월 18일 '제34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34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전시장 내부.

작품을 심사한 심사위원단은 "어린이들의 작품이지만 예상밖으로 창의적인 작품이 많았다"면서 "최대한 아이들의 그림에서 엿볼 수 있는 스토리를 비롯해 색다른 표현 등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34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은 으뜸상 3점, 버금상 6점, 솜씨상 15점, 꿈나무상 15점의

그림으로 꾸러졌다. 전시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예령 광주박물관장은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은 문화재를 매개로 한 문화 체험 및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저마다 동심이 투영된 작품들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라진 태양을 찾아라

전통연희놀이연구소 무언극 '태양을...' 29일 북구문화센터

'태양의 나라'에는 꿈과 희망을 모아서 만든 태양이 떠 있다. 어느 날 방향하던 용이 태양을 여의주로 착각해 물고 떠나 버린다. 용맹한 '불개'는 이를 되찾아오라는 명을 받고 지혜의 신 봉황, 현무 등을 만나 방법을 모색하는데...

전통연희놀이연구소(대표 정재일)는 창작 연희극 '태양을 찾아온 불개'를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먼 옛날 일식과 월식을 보면서 떠오르는 상상력을 담아낸 '까마나라 불개'라는 설화가 모티브다. 여기에 고구려 사신도 이야기를 재구성해 전통연희 형태로 재창작한 난버벌 퍼포먼스(무언극). 총 5장으로 진행되며 '태양의 나라', '봉황으로부터 지혜를 얻다', '현무에게서 냉기를 얻다', '용의 나라', '동서남북 수호신' 순이다.

연출은 김호준이 맡았으며 시놉시스는 정재일이 썼다. 신숙자, 오강식, 황인상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공연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로 2023 광주상설공연작으로 선정,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공연마루에서 공연 중인 '무등산 호랑이' 시리즈 1편이다. 2편으로 '뱀죽활법과 호랑이', '개똥이와 무등산호랑이' 등도 볼 수 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 강미화 팀장은 "이번 공연을 포함해 '무등산 호랑이' 시리즈가 앞으로는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재밌는 전통연희놀이 공연으로 각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